

 금융위원회	<b>보도 해 명</b>			• 혁신금융 • 포용금융 • 신뢰금융
	<b>보도</b>	<b>배포 후 즉시</b>	배포	2019.5.29(수)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보험과장 하 주 식(02-2100-2960)	<b>담 당 자</b>	권 기 순 사무관 (02-2100-2963)	

**제 목 : 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내용 및 일정은 아직  
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.**

**[머니투데이 5.30일자(가판) 기사에 대한 설명]**

**1. 기사내용**

- ① “설계사 첫해 수수료 1200%로 낮춰라”  
(금융위 “내년부터 가입자 연간 보험료 넘지 못하게” 직접 규제)
- ② 내년부터 보험설계사들이 보험 상품을 팔아 받는 첫해 모집  
수수료가 보험가입자가 연간 내는 총보험료를 넘지 못한다.
- ③ 2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보험  
설계사 수수료와 사업비를 직접 규제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
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.

**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**

- 금융위는 불완전 판매 및 각종 민원·분쟁을 유발하는 모집  
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,
- 현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중인 단계로, 기사 내용과 같은  
세부적인 제도개선 방안, 감독규정 개정 시점 및 시행 시기 등  
구체적인 개편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<b>금융위원회 대 변 인</b> pfsc@korea.kr	 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--	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